

菊 塢 雜 識

柳 永 博
<서울대학교 文理大 教授>

1. 체재(體裁)

이 《菊塢雜識》은 앞에 소개한 《石樓記聞》과 같은 체재를 가지고 있거니와 저자가 아마도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菊塢雜識의 경우에 있어서도 누구라고 아직은 단정(斷定)하지 못하였다. 菊塢雜識은 모두 8권4책으로서 한책(冊)에 2권씩 편찬한 수사본(手寫本)으로 1권마다 평균 35매 즉 60~70면(面) 정도의 분량이다. 그리고 제1권과 제2권을 합본(合本)하여 제1책으로 엮어 <春卷>이라 이름하여 총4책을 春·夏·秋·冬으로 구분지어 놓았다. 기타의 체재에 있어서는 石樓記聞과 꼭 같은 것이다.

2. 입수(入手)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연구 분야의 새로운 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부단한 관심과 성의를 다기우리는 것이거니와 이 菊塢雜識의 입수경위를 말하면 이책을 얻기 까지에는 먼 지방 여행의 소독이었다. 이미三年前 한말사료(韓末史料)를 한 피짜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남 화순(和順)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어느 시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 그 때가 마침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기차에서 내려서 부터는 먼거리를 뺨스를 타고 가다가 그 뺨스마저 타고 갈 수 없는 산간 촌락을 걸어서 찾아가는데 산사태로 길이 막혀 여간 고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끝내 사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분을 찾아 만나는데 성공했고 친절한 호의로 하루 밤을 꼬박 새워가며 사료들을 살필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참으로 뜻밖 에 귀중한 사료와 자료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였고 육십나는 것을 당장에 손에 넣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는 후일에 하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다만 菊塢雜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장자(所藏者)의 요청으로 아직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특별한 호의로 菊塢雜識만은 얼마 안되는 사례금 정도로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려는 날 아침도 여전

히 장마비는 억수로 나리고 있었다. 오전 11시쯤 되자 퍼붓던 비는 잠시 멈추기에 길을 나섰던 바, 뺨스가 왕래하는 신작로까지 삼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 나오는 도중에 다시 큰 비가 쏟아지고 수없이 건너야 하는 크고 작은 냇가에는 어제보다 물이 불어서 어느 곳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건너는 수가 없어서 냇가에 우두커니 그 비를 흠박 맞으며 서 있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얼마 후 저멀리에 한 농부가 일하다 말고 내게로 오더니 냇물을 업어 건내 주었다. 냇물이 하룻밤 사이에 어찌나 많이 불었는지 등에 업혀서도 내 아랫 도리는 다 물에 빠지기에 책 보다리를 머리 위로 치켜 올려 떠 받들고 어떤것은 양부저고리 품속에 지니기도 했었다. 냇물을 건너는데 고심하던 그 농부에게 말로만 감사하다고 했을뿐, 그 고마운 농부의 이름쯤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감박 잊고 말았었다. 이 菊塢雜識이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마당에 그 농부의 친절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는데 이름을 물어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생각키운다.

3. 내용(內容)

菊塢雜識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아래에서 조금만 읽어 보기로 하자.

菊塢雜識卷一

A, 檀君即位後奠國內之山川東限大海令之太平洋西連遼河令屬支那盛京省南至鳥嶺在開慶府西二十七里北接黑龍江江在支那黑龍江省之北也

B, 墓之穴脫山頭之生氣則是不合於山形地勢故以至絕嗣矣占山者當銘心也

C, 비암밭多産于原野之砂地每年春間採取而食用法熟後以菜食之也

D, 隋煬帝有弑父之心唐玄宗有殺子之事乃千古之大變而史筆載嚴也

E, 國旗者所重自別而即國家以旗章表示故國有大小之慶則爲國民者對國家以表其同歡共之誠懇也

F, 茸之類有十六種一日推茸俗稱蘘古二日松茸三日栗茸四日青頭菌俗稱피벗섯五日天花茸俗稱눈타리六日麥茸俗稱발동구리버섯七日續茸八日싸리버섯九日국슈버섯十日木茸俗稱홀리버섯十一日石茸十二日밀버섯十三日오이꽃버섯十四日경버섯十五日외외리버섯十六日갯버섯也

G, 夫婦之結婚自我本位之一生大事而決非父母兄弟強制嫁娶之事也

H, 箕子自殷國東來于朝鮮以八條教民至令東方禮俗之盛始于此也

I, 松葉久食則大便秘不通故大豆末一二匙和水二三日飲之則即通也

J, 讀書之要有六種一曰功而不迫二曰裕而不弛三曰謹而不拘四曰通而不肆五曰沉潛而不溺六曰高明而不畧也

K, 婦人多生產則身體痿弱精血枯渴恒比男子老衰之期速于十餘年者理之常也

L, 新羅時東海之中有山浮來隨波往來而山上有竹王命作笛名之曰萬波息笛也

M, 道里之數以三百六十步爲一里而計一百八十丈約人行之一千步也

N, 夜靜則石泉雖遠而愈響月明則山鳥有時而一喧天地自然之理也

위에서 읽어 본 바와 같이 모두가 짧막한 상식(常識)을 적어 놓은 것이다. 菊塢雜識이라는 이름도 결국은 雜多한 常識을 다루워 놓은 기록이기에 그렇게 지어 붙인 것인 줄 안다. 제1책 중에도 1권과 2권이 합쳐져 있는데 제1권 가운데에는 총 50매 즉 100페이지에 무려 470개의 항목(項目)이나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페이지에 4개 이상의 항목이 들어 있는 셈이 된다. 역사와 지리에서 구황식(樞荒食)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도덕과 여자가 出産하는데 있어 알아야 할 여타가지 지식을 적었고 특히 독서(讀書)에 관한 기록도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菊塢雜識은 東洋式 常識百科라 할 만한 책이다. 그러므로 한가지 항목에 깊은 지식을 알려 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오늘 날에 와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러한 類型的 책(古書 중에는)들이 많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무척 대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위에 이끌어 놓은 14개 항목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A항은 고대(古代) 우리 나라의 광대하던 국토의 넓이를 말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서쪽은 중국의 요하(遼河)에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흑룡강(黑龍江)에 이르렀었다는 것이다. 우리 고대의 선조들이 활동하던 무대가 오늘 날 만주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없음에 비추워 볼 때 菊塢雜識에서는 하나 하나를 분명하게 고증(考證)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매우 좋은 기록을 첫권 첫머리에 올려 놓았다.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가 한반도(韓半島)로 줄어들기 이전의 대륙에서의 역사 무대를 그 연대(年代)로 따져 보면 즉 년수(年數)가 단군 이후 위씨(衛氏) 조선 이전까지가 무려 2,225년, 고구려가 705년, 발해가 227년으로 합하여 보면 놀라움에도 3,157년이라는 너무나 장구한 역사적 기간이었다. 그런데 비교하여 중국의 한(漢)민족이 이 지역을 지배한 년수는 대략 450년이고 기타 세의민족이 지배했던 년수는 583년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만주대륙을 지배한 것은 타민족이 지배하던 3배가 넘었던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낱 지나간 역사적 사실만으로 알고 끝일 수 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여타가지를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B항의 묘소(墓所) 선정에 관한 것은 시대성(時代性)을 탈피치 못한 내용이며 C항은 구황식을 알려 준것으로 매우 실제적인 지식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 菊塢雜識 속에는 구황식에 관한 항목이 다른 항목 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가 옛부터 기근이 심했던 사회적 반영(反映)이라고 볼수하다. I항은 구황식물의 하나인 솔잎(松葉)을 오래 먹으면通便(通便)이 나쁜점을 지적하고 그 치료 방법을 말한 내용이다. F항에서 읽었듯이 우리 나라의 <버섯> 종류가 16개 종류임을 지적하고 일일이 그 이름을 적어 놓았다. 버섯은 본시 구황식물은 아니지만, 버섯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 구황식물을 확대해 나가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역사에 관한 H항에 대해서 보자. 오늘 날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箕子의 東來說은 부인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다. 菊塢雜識의 편자(編者)는 기자 동래의 사실을 기록한 어느 문헌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같은 편자의 손으로 우리 나라 역사를 짧게나마 수록(收錄)하는데 고대강역의 광활함에 대한 기록을 뽑아 놓으면서 그와는 반면에 고대 예속(禮俗)의 융성은 기자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을 이끌어 놓고 있음을 볼 때 편자의 안목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그러한 것이기에 雜識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L항의 萬波息笛는 매우 재미 있는 것이었다. 신라에 관한 기록을 다 찾아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는가 충분히 뒤져 보지는 못하였지만, 동해(東海) 가운데에 산이 있었다면 그곳은 어디를 말할 것인지 궁금하나, 아무튼 그 산에 대(竹)나무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떠오른 하던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라고 이름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 보다 전설로 불 만한 것이고 마지막의 N항은 고요한 밤이면 돌샘(石泉)이 비록 멀리 있다해도 그 흐르는 물 소리는 크게 들리고 달이 밝으면 산에 새들이 있으며 한 마리가 지저귀는듯한 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라 했다. 이것은 시문(詩文)에 가깝지 자연과학적 설명은 못되는데 그 까닭은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는 이유를 해명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 菊塢雜識은 독서에 관해서도 훌륭한 지침(指針)을 또한 보여 주고 있다. J항이 즉 그것인바, 책을 읽는데 있어 여섯가지 요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날 독서방법으로 비교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A, 功而不迫은 무엇인가. 무릇 사람이 책을 읽는데는 목적하는 바가 있게 마련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독서는 순수한 교양을 위해서 또는 교양의 지식을 얻고져 읽기도 하고 단순한 취미로 절박한 이용이 전제되지 아니 한 한가로운 독서도 있으며 자기가 처(處)해 있는 조직에 있어서 승진을 목적으로 시체

(試探)준비를 위한 독서도 있고 순수학문 연구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독서는 그 대부분의 목적이 출세를 위한 시제(試探)준비로서 책을 읽었던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 <功而不迫>은 그러한 경우에 경고(警告)해 주는 말이라 하겠다. 즉 책을 읽음에 있어 성과(成果)에 급급하여 급(急)히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B, 裕而不弛은 어떠한 것인가. 독서의 자세는, 책을 읽되 여유있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해서 해이(解弛)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功而不迫>의 독서방법을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유있는 자세로 책을 읽어가게 되겠으나, 그렇게 되면 어떠한 폐단이 따르기가 쉬운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풀어지는 해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C, 謹而不拘는 어떠한 것인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이듯이 오로지 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그 좋은 결과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또한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책을 읽는데 있어서는 독서삼매(讀書三昧)의 경지가 그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읽는 바에 오로지 정성을 다 기우려 읽되 그것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D, 通而不肆란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그것으로 우선 만족해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우는 책을 읽는데 있어서도 마치 한가지라 하겠는데

어떠한 의문이 있어 그것을 알고저 책을 읽거나 또는 학문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나 어느 경우건 간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것 이상을 더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독서 경향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던져준 말인데 알았다 해서 책을 버리지 말고 또 조금 안것을 가지고 아는척 하여 말하지 말것이며 책 읽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 沉潛而不溺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데 몰두하다 보면 그 책의 내용 세계에 빠져 들어가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 해서 아주 빠져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책을 읽는 사람의 주관을 잃지말아야겠다는 것과 객관적인 비판정신을 가지고 책을 읽지 않으면 남의 글에 자기가 빠져 정신적으로 익사(溺死)하고 말게 되기 때문이다.

F. 高明而不略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 高明而不略이란 위에서 만한 다섯가지 독도의 요령과 방법에 비교하면 매우 해석하는 범위가 넓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남의 글을 읽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잘되고 못된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므로 그것을 훑잡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東洋式 常識百科”라고 할만한 菊塢雜識이 보여주는 내용 전부를 다 말할 수 없기에 여기에 끝인다.

1969

海外學術雜誌預約拜受

迅速・正確한 情報의 收集과 活用은 現代生活의 에센스입니다.

弊社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바하는 굴지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를 망라한 海外代理店網을 形成하므로서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問議하신 即時 案内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쿠폰대행기관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주소・서울鍾路三街13-5

전화・73・4262 74・3783

國際私書函2558号